

1950년대 국립박물관 館是에 대한 고찰

장상훈_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 학예연구관

I. 머리말

II. 관시 제정의 배경과 내용

1. 자주적 한국 고고학·미술 연구와 인재 양성
2. 사회교육기관으로의 지향

III. 관시 제정의 경과

IV. 맺음말

1950년대 국립박물관 館是에 대한 고찰

장상훈

I. 머리말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접수하여 1945년 12월 3일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국립 문화기관으로서 신생 독립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중을 계몽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전개했다. 해방 공간과 육이오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국립박물관이 1950년대에 제정한 관시¹⁾는 개관 이래 추진해온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박물관 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관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 배경과 경과를 살핌으로써 개관 초기 국립박물관의 과제 인식과 지향점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II. 관시 제정의 배경과 내용

1. 자주적 한국 고고학·미술 연구와 인재 양성

1950년대 관시의 제정은 국립박물관이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

* 이 논문은 여당 김재원 박사 기념사업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1955년 2월 「國立博物館現況調查報告書」에 기술된 국립박물관의 관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설 이래 본 국립박물관의 특색이 되어온 고적유물 발굴조사 사업을 속속 추진함으로써 자주적인 한국 고고학, 미술 연구 발전의 기초를 쌓고 소장유물의 확충과 권위를 증대시킨다. 2. 박물관을 일부 학자 好古人の象牙塔視해 온 종래의 관념을 일소하고 역사, 고고학, 미술 등 각 분야의 주요한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그 민중화와 학생 생도를 상대로 하는 보급 계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3. 박물관을 일반 연구자, 작가, 학도의 연구소로서 널리 개방하여 학문의 진운과 미술의 진작에 기여하고, 아울러 인재양성에 이바지한다” [「國立博物館現況調查報告書」(1955. 2),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관시의 全文과 거의 같은 내용이 이미 1952년 12월에 작성된 “四二八六(1953)年度事業計劃書”(1952. 12. 8.) 속에 ‘목표’라는 제하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의 일부 표현을 교체 또는 추가하여, ‘館是’라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설정한 때는 대체로 전술한 1955년 2월의 “국립박물관현황조사보고서” 작성 시점이나 그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고 비판함으로써 전후 국립박물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자주적인 한국 고고학, 미술 연구 발전의 기초를 쌓는다는 내용을 관시의 첫 머리에 둔 것은 한국의 물질문화에 대한 담론에서 한국인이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인 스스로가 그 담론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를 실천하기에 광복 직후의 상황은 척박했다. 1945년 12월의 개관과 관련하여 국립박물관이 “倭色을 一掃하고 面目을 一新한 準備下에 陳列館을 再開”하였다고 했지만,²⁾ ‘왜색의 일소’가 전시품 설명 문안 중의 일본어를 없애는 것 이상의 것이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전시를 주도한 사람이 구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일본인 주임이었던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教一]였고,³⁾ 이른바 한국의 타율성론을 주축으로 하는 植民史觀의 물질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낙랑·대방실도 박물관 2층 동측에 그대로 존속되었기 때문이다.⁴⁾

실제로 광복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은 서무 담당이었던 崔泳禧가 유일하였고, 학예연구 업무를 담당한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국립박물관 바깥에서도 국립박물관에서 일할 만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한국인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이다. 광복 직후 국립박물관의 학예직원이 된 인력의 면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족 초기의 국립박물관은 고고학이나 미술사학을 전공한 인력을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일제강점기에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사학 전공 또는 비전공 인력이 채용되었다. 따라서 채용된 인력의 학문적 축적은 국립박물관의 현안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국립박물관이 자주적인 학술 역량의 구축을 위해 부심한 이유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박물관이 접수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던 고고학 발굴과 연구 역량을 한국인 연구 인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개관 이듬해 국립박물관의 첫 고분 발굴조사를 이끌어냈다.⁵⁾

당시 한국인 가운데는 발굴 조사를 주도할 전문 인력이 없었으므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

2 國立博物館, 『館報』 제1호(1947. 2), p. 1.

3 有光教一 著, 김성남 譯, 「一九四五~四六년에 있었던 나의 경험담」, 『韓國考古學報』 34(1996), pp. 14-15. 이를 뒷받침하듯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국립박물관의 구체적인 비판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아리미츠는 1945년 12월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대해 “과연 건물은 이전의 조선총독부박물관 그대로였으며, 진열품도 같은 상태”였다고 했다(주2의 글, p. 15). 아울러 Helen B. Chapin이 1948년 10월에 작성한 “Guide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라는 제하의 영문 안내서도 제4실(일제강점기의 낙랑·대방실)의 진열장 2개에 오타니 수집품이 추가로 진열되었을 뿐 그 이외의 전시 내용은 동일했음을 보여준다.

5 국립박물관 『館報』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발굴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남선과 서선의 고대문화 중심지에서 이루어진 고분 발굴에 일류 학자가 동원되었으며, 출토품을 수집 정리하고 조사보고서를 학계에 제출하여 동양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저명하다”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7. 2), p. 1].

표 1. 국립박물관 서울 본관의 초기 학예 직원 명단

성명	채용 당시 학력	채용일	비고
金載元 (1909 - 1990)	원혜대학 (교육학), 박사	1945. 9. 21. 1945. 9. 26. 관장 임명	1945~1970년 국립박물관 관장
林泉 (1908 - 1965)	東京帝國美術學校 (중퇴)	1945. 10월	
李弘植 (1909 - 1970)	東京帝國大學 (일본사), 학사	1945. 12. 20.	1953~1957년 연세대학교 교수 1958~1970년 고려대학교 교수
徐甲祿 (? - 1949)	延禧專門學校	1946. 5. 1.	1949년 사망
張旭鎭 (1917 - 1990)	東京帝國美術學校	1946. 11월 이전	1947. 9. 3. 사직
金元龍 (1922 - 1993)	京城帝國大學 (동양사), 학사	1947. 2. 1.	1961년 사직 1970~1971년 국립박물관 관장
黃壽永 (1918 - 2011)	東京帝國大學 (경제학), 학사	1947. 8. 1.	1950. 10월 사직 1971~1973년 국립박물관 관장
閔天植 (? - 1950?)	早稻田大學 (?), 학사	1947. 10. 1.	1950년(?) 사망
秦弘燮 (1918 - 2010)	明治大學 (경제학), 학사	1947. 4. 1. (경주분관)	1963. 3월 사직
崔禧淳(崔淳雨) (1916 - 1984)	松都高等普通學校	1946. 4. 6. (개성분관) 1949. 12. 21. 본관 전입	1974~1984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출처: 國立博物館, 『館報』(1947-1949); 金載元, 『博物館과 한평생』(探究堂, 1992), p. 50; 金載元, 『景福宮夜話』(探究堂, 1991), p. 6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서도 시기가 이르다는 비판이 있었고,⁶⁾ 미 군정 또한 광복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굴을 허가하는 데 주저했다.⁷⁾ 그럼에도 김재원 초대 관장은 독립국가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자체적으로 학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는 의지를 관철시켰다.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인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 주임이었던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教一]를 한국에 잔류시켜 고분 발굴조사 방법을 전수받는 것은 그 목표에 접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 경주 壺杆塚의 발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47년 2월에 발간된 『館報』 창간호의 머리말에 김재원 관장이 “解放이 된지 벌써 1年半이

6 金載元, 『景福宮夜話』(探究堂, 1991), p. 50.

7 유진 크네즈, 『한 이방인의 한국 사랑』(국립중앙박물관, 1997), pp. 27-28.

필야고 한다. 그러나 獨立의 길은 아직도 멀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形便을 돌볼 때 어느 것 하나 딱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 손으로 된 첫 發掘에 큰 成果를 얻은 것이 한 業績일 것”이라고 한 것은 1946년의 호우총 발굴이 한국문화 연구 분야에서의 자주 독립에 첫 걸음이 되었다고 자평했기 때문이다.⁸⁾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일본인 고고학자가 조사를 지도했지만, 이 조사는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자국의 물질문화를 발굴한 첫 사례였다.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모든 한국인들의 뇌리에 있는 시점에서 직접 발굴조사를 수행하여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것을 한국어로 발표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⁹⁾ 개관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추진된 발굴조사 사업은 이제까지 일본인들이 한국의 물질문화 담론을 장악한 식민지적 상황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발굴조사에 이어 추진된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1946년 8월부터 개최된 관내 研究會는 ‘館員의 考古學的 啓蒙’을 위한 것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특정 과제에 대해 관원이 직접 학습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아울러 외부의 강사

표 2. 국립박물관의 1946년 관내 연구회 개최 현황

일자	주제	발표자
8. 3 / 8. 10 / 8. 31 / 9. 7 / 9. 14 / 9. 21 (6회)	중국 고고학의 중요 문제 - 殷墟文化, 청동기, 옥, 白色陶器 등	김재원
9. 28 / 10. 5 / 10. 12 (3회)	조선고대사 연구자료(문헌)의 소개 및 신라고대 사회제도의 특수면에 대하여	이흥직
10. 19	明器, 泥像에 관하여	서갑록
10. 26	스키타이 문화	김재원
11. 2	東洋繪畫의 濫觴	장육진
11. 23 / 11. 30 (2회)	고대 馬具에 관하여	서갑록
12. 7	조선 古版本의 이야기	이흥직

8 『館報』 제1호, 머릿말: 같은 지면에 실린 호우총 발굴조사는 당시의 발굴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學者로서 發掘調査의 機會를 얻은 者는 稀有하였다. (中略) 發掘 當初의 藉藉하던 一般 輿論客들 앞에 信念을 가진 우리들의 研究的 發掘態度와 우리들 國語로서 世界文化史上에 바칠 첫 資料의 高價를 서슴치 않고 드리는 바이다.”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7. 2), pp. 5-6].

9 국립박물관은 발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호우총 발굴 문화재 전시회를 열었고, 이와 함께 발굴 과정도 영상으로 담아 국도극장에서 상영하였다. “解放1週年 기념행사가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을 때 본관에서는 광복 후 우리 손으로 발굴된 출토품 중 중요한 것을 진열 본관 회랑에 8월 15일부터 금월 말일까지 특별 전람을 하며 동시에 이 발굴을 중심으로 제작된 朝鮮映畫社의 文化映畫 ‘新羅의 古墳’이 國都劇場에서 상영되어 다대한 관심을 끌었다”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7. 2), p. 7].

를 초빙하는 것도 계획되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 연구회에는 국립민족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의 관원들도 참여하였다.¹⁰⁾

이러한 연구회의 운영은 해방 후 박물관의 운영을 위해, 또한 한국의 물질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 학습과 연구의 필요성이 절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구축한 식민 담론의 극복을 위한 초보적인 노력이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일제강점기의 전시가 그대로 유지된 상설전시실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작업은 지난한 것이었고 단기간 내에 수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도 힘겨웠던 국립박물관이 자주적인 한국 고고학·미술 연구 발전의 기초 구축과 함께 인재 양성이라는 임무를 관시에 적시한 것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담론을 구축하고 동시에 이를 담당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사회교육기관으로의 지향

일제 치하에서 대개 일본인이었던 소수의 학자와 문화재 소장가들만 향유하던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어 사회교육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설립 초기 국립박물관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¹¹⁾ 국립박물관은 개관 행사 다음날인 1945년 12월 4일부터 일반 관객의 전시실 관람을 개시하였다. 경복궁 경내에 미군 막사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인해 1946년 8월 29일부터 1947년 6월 5일까지 약 8개월 간 관람이 중단되어, 1946년 약 8개월간 서울 본관의 관객은 18,703명에 그쳤다.¹²⁾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도 서울 본관과 4개 지방본관의 총 관객 수는 175,498명을 기록했고, 이 중 서울 본관 관객은 83,921명이었다. 이는 1924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한국인 관람객 매년 평균치인 19,643명(255,359명/13년)을 4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었다.¹³⁾

이렇게 증대된 관객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의 보급 계몽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곧 국립박물관의 현안이 되었다. 또한 1948년 4월 11일부터 1949년 1월 9일까지 미국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 김재원 관장이 미국 박물관계의 활동으로 주목했던 것이 바

10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7. 2), p. 6.

1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주된 관람객은 일본인이었다. 1924년부터 1936년까지 한국인 관객이 일본인 관객보다 많았던 해는 1925년, 1926년, 1935년의 3개년뿐이었다. 『朝鮮社會教育要覽』(朝鮮總督府, 1941), pp. 83-84.

12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7. 2), p. 6 및 p. 8.

13 국립박물관, 『館報』 제7호(1949. 9), p. 5 및 『館報』 제8호(1949. 12), p. 10 및 주11의 글.

표 3. 국립박물관 미술강좌 개최 내역 (1949~1950)

일자		주제	강사	비고
1회 (1949년)	5. 7(토)	조선의 탐파	黃壽永	
		미국기행	金元龍	
	5. 14(토)	불상 이야기	閔天植	
	5. 21(토)	불상 이야기	閔天植	
	5. 28(토)	동양화의 상식	金瑬俊	동국대 교수
	6. 4(토)	이조 목공예에 대하여	申應植	
	6. 11(토)	고려도자기에 대하여	崔禧淳	
2회 (1949년)	10. 26(수)	동양미술의 시원	金載元	
		석조미술탐파	黃壽永	
	10. 27(목)	미술품의 명문	李弘植	
		남화와 북화	金瑬俊	동국대 교수
	10. 28(금)	이조도자에 대하여	李揆弼	덕수궁미술관 관장
		삼국이전의 미술	金元龍	
	10. 29(토)	불상의 형식	閔天植	
		조선도자기의 공예미	崔禧淳	
3회 (1950년)	4. 12(수)	삼국시대의 문화	金元龍	
		우리나라의 목죽공예품	申應植	
	4. 13(목)	조선고건축에 대하여	李漢哲	
		불교미술에 관하여	閔天植	
	4. 14(금)	서양미술에 관하여	韓相鎭	이화여대 교수
		현대의 서양화	俞慕烈	
	4. 15(토)	동양미술개설	金瑬俊	동국대 교수
		고도자에 대하여	崔禧淳	

출처: 金載元, 『景福宮夜話』(探究堂, 1991), pp. 35-38.

로 대중 교육이었다. 그는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한 소감으로, “제일 참고되는 것은 역시 이 박물관의 大衆教育에 대한 활동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연구하여야 할 일이 올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⁴⁾ 또한 시카고대학의 자연과학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박물관들은 민중에 대한 계몽교육 사업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관장이 귀국 직후인 1949년 5월부터 개설한 美術講座는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학

14 김재원, 앞의 책(1991), p. 226.

도에 대하여 관계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그들 계몽에 주력함이 증대한 과제”라는 인식 속에서 개설되었다.¹⁵⁾ 이때부터 이듬해인 1950년 5월까지 세 차례(1949년 5월, 1949년 10월, 1950년 5월) 열린 미술강좌(매회 4~6일 강좌 진행)는 주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주된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차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강좌를 위해 1949년 9월 修政殿의 일부를 이용하여 강당이 신설되었고, 특히 김재원 관장이 미국에서 도입한 환등기 두 대가 활용되어 그 효과를 더했다.

특히 1950년 5월에는 광주의 조선대학에서 특별 미술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 강좌에는 김재원(고구려 고분벽화), 김원룡(삼국이전의 문화), 최희순(조선의 고도자), 황수영(조선의 탐파) 등 국립박물관의 연구 직원 다수가 강사로 참가하였고, 외부 강사로 김용준(이조회화)이 참여하였다.¹⁶⁾

한편, 강당이 신설되면서 미술강좌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학생 단체 관람객을 위한 진열품 해설이 강당에서 이루어졌으며 환등기도 활용되었다.¹⁷⁾ 1949년 3월에는 본관 상설전시실의 설명카드 문안이 모두 한글로 교체되었고, 9월에는 수정전의 석기시대 진열품과 야외 정원의 석탑과 건축물에 대한 설명 문안까지 모두 한글로 교체되었다.¹⁸⁾ 대중 계몽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1949년 12월의 직제 개편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즉 관장 아래에 총무과, 학예과, 진열과의 3과 체제에 보급과가 추가되어 4과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개편된 “국립박물관직제”에서 보급과는 박물관 사업에 대한 계몽과 선전에 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계몽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육이오 전쟁으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중이던 1953년 초에 작성된 “四二八五年度 事業報告書”에는 “경주·공주·부여박물관이 1951년 후반기부터 평상 운영을 재개하고 예의, 이 활동 복구 강화에 노력해 온바 일부 주요 진열품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진열실의 정비와 그 선전이 주효하여 금년 초두부터는 관람 인원에 있어서 전전 수준에 도달했음은 물론 (중략)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사업 전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자료는 전쟁 중에도 국립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식이 종전 후의 체재 정비 시점에 자연스럽게 국립박물관 관시 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9. 9), p. 5.

16 김재원, 앞의 책(1991), p. 37.

17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9. 12), p. 12.

18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9. 12), pp. 33-34.

19 국립박물관, 「四二八五年度 事業報告書」(1953).

Ⅲ. 관시 제정의 경과

이와 같은 관시의 제정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문건은 아쉽게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육이오 전쟁 중이었던 1952년 6월, 정부 수립 이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政府樹立後四個年間 事業報告書”에 관시와 유사한 문안이 수록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政府樹立後四個年間 事業報告書〉(국립박물관, 1952년 6월)

첫째, 8. 15전의 일본인의 獨壇場이던 박물관은 일반 연구자 학도에게 널리 개방하여 우리 문화재의 연구열을 북돋움으로써 학문의 보편화와 인재 양성에 노력했다.

둘째, 박물관 사업을 일부 연구학자의 象牙塔시해 온 종래의 관념을 일소하고 국민사회 교육의 주요한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박물관의 민중화와 이에 대한 계몽사업 및 학생아동을 상대로 한 지식의 보급 활동을 활발히 전개시켰다.

셋째, 창설 이래 본 박물관의 특색이 되어 온 고적발굴조사를 속속 추진함으로써 자주적인 한국미술 고고학의 기초를 쌓고 소장유물의 확충과 권위를 증대시켜 왔다.

넷째, 소장문화재의 보전과 國內 公私有文化財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실제 지도와 여론 환기에 가능한 모든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옴으로써 기간 銘記할 바 주요업적은 6.25사변 중의 소장문화재 보전과 그 후의 심대한 소개사업의 완수 및 덕수궁미술관 주요문화재의 소개사업 수행까지도 본관의 기획 주도하에 이루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 수록 내용과 관시의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사업보고서’의 성격 상 1952년 6월의 보고서는 ‘성과’를 제시하는 어투로 문안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같은 해 12월 8일에 작성된 “四二八六年度 事業計劃書”는 6개월 전에 작성된 ‘사업보고서’의 문안을 대부분 활용하면서 그것을 ‘목표’라는 제하에 두었다. 국립박물관의 ‘성과’로 제시되었던 내용이 이제 국립박물관의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었다.

〈四二八六年度 事業計劃書〉(국립박물관, 1952. 12. 8)

1. 창설 이래 본 국립박물관의 특색이 되어온 고적유물 발굴조사를 속속 추진함으로써 자주적인 한국 고고학, 미술의 발전의 기초를 쌓고 소장유물의 확충과 권위를 증대시킨다.
2. 박물관을 일부 학자 好古人の 象牙塔視해 온 종래의 관념을 일소하고 역사, 고고학, 미술 분야의 주

요한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그 민중화와 학생 아동을 상대로 하는 보급 계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3. 박물관을 일반 연구자, 학도의 연구소로서 널리 개방하여 학문의 진운에 기여하고 인재양성에 이바지한다

이와 같이 ‘목표’로 정리된 문안은, 현존 자료만을 기준으로 할 때, 관시가 처음 수록된 「國立博物館現況調查報告書」(1955년 2월)에 있는 것과 내용이 대부분 같다.²⁰⁾ 한편 이듬해인 1953년 8월에 작성된 “政府樹立後五個年間 事業報告書”에는 1952년 6월에 작성된 “政府樹立後四個年間 事業報告書”의 내용이 대부분 수록되었다.

〈政府樹立後五個年間 事業報告書〉 국립박물관 1953년 8월

八一五後 총독부박물관을 접수 발족한 본 국립박물관은 기간 미군정하 인재 재정 등 허다한 협애를 극복 타개하면서 자율적인 정비 확충에 노력, 4281년 정부수립을 맞이함에 있어서는 활발히 운영되는 남한 五個의 본분관을 擁하여 독립국민의 새로운 의욕으로써 한국 박물관 사업의 자주적 발전을 진전시켰다.

첫째, 팔일오 전의 일본인학자들이 독점하였던 박물관을 우리 일반학도에게 널리 개방해서 우리 문화 및 일반 고고학 미술사 연구열의 기운을 양성하였으며

둘째, 박물관사업을 일부 학자 好古人の 상아탑시 해온 종래의 관념을 시정할 역사, 고고학, 미술 분야에 있어서의 민중과 학생, 아동, 실기가를 상대로 하는 광범한 국민사회교육에 이바지해왔다. 그 일단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박물관에 강당을 설치하고 영사기, 환등기를 비치했으며 빈번한 강좌 講話會를 개최해서 한층 많은 민중과 학생아동을 박물관에 친근케 했다.

셋째, 창설이래 본 박물관의 특색이 되어온 고분 발굴조사를 속속 추진함으로써 자립적인 한국미술 고고학 발전의 기초를 쌓고 소장유물의 확충과 그 권위를 증대시켜왔다.

이와 같이, 1952년 6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작성된 두 종의 보고서와 한 종의 사업계획서에는 1955년 2월의 보고서에 ‘관시’라는 제하로 수록된 내용의 초안이 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1952년 12월 8일에 작성된 ‘1953년도 사업계획서’의 ‘목표’는 1955년 2월에 이른바 ‘관시’로 성문화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늦어도 1955년 2월에 제정된 관시의 초안이 되었다고

20 다만, 관시 제2조의 ‘학생생도’라는 문구가 「四二八六年度 事業計劃書」에는 ‘학생아동’이라 되어 있고, 관시 제3조의 ‘작가’, ‘미술의 진작’ 등의 표현은 동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지 않다.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1952년 12월에 작성된 보고서의 ‘목표’가 1952년 6월의 보고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또한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사업보고서는 같은 내용을 사업성으로 기술하고 있고, ‘목표’나 ‘관시’는 임무나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국립박물관 관시는 “5개년간 사업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1953년 하반기에서 「國立博物館現況調查報告書」에 관시가 수록되는 1955년 2월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²¹⁾ 이렇게 제정된 관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착되어 이후 각종 국립박물관의 현황 보고 자료에 수록되었다.²²⁾

1. 창설 이래 본 국립박물관의 특색이 되어온 고적유물 발굴조사 사업을 속속 추진함으로써 자주적인 한국 고고학, 미술 연구 발전의 기초를 쌓고 소장유물의 확충과 권위를 증대시킨다.
2. 박물관을 일부 학자 好古人之 象牙塔視해 온 종래의 관념을 일소하고 역사, 고고학, 미술 등 각 분야의 주요한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그 민중화와 학생 생도를 상대로 하는 보급 계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3. 박물관을 일반 연구자, 작가, 학도의 연구소로서 널리 개방하여 학문의 진운과 미술의 진작에 기여하고, 아울러 인재양성에 이바지한다

IV. 맺음말

1950년대의 국립박물관 관시는 1945년 개관 이래 축적했던 국립박물관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으로서 그 임무를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딛고 국가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비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자주적인 한국 고고학·미술 연구, 대중 계몽, 문화 창달 등 세 가지 목표는 광복 직후의 국립박물관이 식민지배 하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규정한 한국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자주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일제하 박물관의 권위주의적 운

2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존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1955년 2월은 관시가 수록된 가장 이른 시점이다. 「國立博物館現況調查報告書」가 작성된 1955년 2월을 ‘관시’의 제정과 수록 시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2 현존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국립박물관개람」(1958. 10), p. 22, 「국정감사자료」(1960), p. 21, 「국립박물관현황」(1961. 5), p. 29, 「국립박물관현황」(1962. 1), p. 20 등에 관시가 수록되어 있다.

영을 타파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관시를 제정하고 국립박물관의 지향점과 임무를 제시한 것은 ‘문화 부문에서만은 속히 建設의 거름으로 나아가려한다’는 1947년 2월 국립박물관 관장 김재원의 문제의식을 부문별로 구체화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²³⁾ 이러한 관시는 1962년 1월에 작성된 “국립박물관 현황”에 마지막으로 수록되고 1962년 7월에 작성된 “국립박물관 업무현황”부터는 공식문건에 수록되지 않는다.

23 국립박물관, 앞의 책(1947. 2), 머릿말.

The Miss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e 1950s

Jang Sang-hoon _ Curator, Research and Planning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stablished its museum mission in the 1950s to serve as the national museum of the newborn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operational achievements of the museum since its foundation in 1945, and to declare the role and vision of a national museum at a time when the Korean people had to overcome the ravages of the Korean War and rebuild their country. It is unclear exactly when the mission was established, but existing materials include the *Survey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ich was created in February 1955 and describes the following:

1. By pushing forward with the excavation and research projects that characteriz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ince its foundation, the NMK should independently build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aeology and art, expand its collections and increase its authority.
2. By breaking away from the notion that the museum is an ivory tower built only for the sake of a few scholars and antiquari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hould develop projects aimed towards the enlightenment of the public and students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elds of history, archaeology and fine art.
3. By opening the museum as a research center for researchers, artists and student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disciplines and fine art, and be conducive to the cultivation of talent.

The three goals stated in the mission, consisting of independent research in Korean archeology and arts; enlightenment of the public; and promotion of cultures, were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independence in order to reject the colonized identity of Korean culture as previously propagated under colonial rule by the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hile independently pursuing Korea's own identity as a sovereign nation and at

the same time, breaking down the authoritarian operation of museums under Japanese rule, thereby serving to enlighten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nation's cultural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on and the suggestion of goals and tasks for the national museum are assessed as an attempt to compartmentalize and realize the issues set forward by Director-General Kim Jae-won in a comment made in February 1947, "The museum is determined to move forward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field at the very least." The mission was finally included in the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ritten in January 1962, and does not seem to appear in official documents since then.